

제주도 큰곳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이 수 자*

1. 머리말

현재 제주도에 행해지고 있는 무속 중 특히 큰곳은 우리 민족문화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옛날, 우리 민족이 우주창조 및 인간사 일들을 관여하는 많은 신들이 실존(實存)한다고 믿고, 우리들 삶의 안전과 행복을 이들 신들에게 기원하기 위해 창조해내었던 바, 열두거리로 구성된 종합적인 신맞이 의식의 원래적 모습을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무속은 바로 이러한 고대적 제의의 잔존물이라 할 수 있는데, 무가 사설, 즉 언어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육지 쪽의 무속은 그 모습이 원래적 모습으로부터 많이 변해 있는데 반하여 제주도의 그것은 아직도 그 원형적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중시하여 우리의 고대적 문화양태를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주도에 이처럼 고대의 종합적인 제의형태였던 큰곳이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며 남아 있게 된 것은 우선은 이곳에 세습무가 많아서, 그리고 굿을 하는 기회가 많아서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이곳이 섬이어서 문화접변이 적었던 데서 온 결과일 수 있다.

* 안성여자기능대학장

본고는 제주도 큰굿이 가진 이러한 위상을 중시하여, 큰굿 내의 신화 속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상의 특질을 고찰해 보고자 시도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큰굿 전체에 나타나는 바 신화형성 집단의 가족관, 또는 세계관을 살펴서 그것이 가지는 문학적·문화사적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나중에 제주도 큰굿의 형성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은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 및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신화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신화들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상의 특질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주도 큰굿을 형성한 집단이 중시했던 자녀 형태 및 세대를 중시할 때 나타나는 가계구성상의 특질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핀 바의 특징들이 가지는 문학적, 또는 문화사적 의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와 큰굿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화들

제주도의 큰굿은 구조상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신화 내용을 중시하면 그 형성 시기가 매우 오래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현행되고 있는 제주도 큰굿을 대상으로 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제주도에 행해지고 있는 큰굿을 채록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어떤 구조적, 혹은 논리적인 체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의의 성격 및 신화적 원리를 중시하여 제주도 큰굿의 구조를 다시 연구해 보면, 이것은 원래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열두 개의 구조를 가진 제의였다고 볼 수 있다.¹⁾ 본고는 궁극적으로는 이미 연구된 바의 이러한 열두거리 구조를 가진 큰굿의 형성 시기를 고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시도

되는 것인 만큼, 여기에서는 편의상 이러한 열두거리 구조를 가진 큰곳을 제주도 큰곳이라 지칭하고,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화들을 중심으로 가족구성상의 특징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큰곳 열두거리에 있었던 신화의 종류와 성격을 알기 위해 다음에는 우선 큰곳 열두거리의 구조 및 여기에서 구송되었던 신화를 소개해보기로 한다.

1) 초감제

[초감제]는 이 세상의 창조에 관여했던 신들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무속제의에서 모셔지는 모든 신들을 제의하는 장소로 맞이하는 종합적인 신맞이제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베포도업침>이라는 신화가 불리워졌는데, 이것은 붙어있던 하늘과 땅의 분리, 생명체의 탄생, 해 달 별들의 생성과 조정, 신들의 이승과 저승차지시합, 인간 세상의 문화가 마련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명실공히 우리민족의 천지창생(天地蒼生) 신화라 할 수 있다. 베포도업침 중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나 신들의 이승과 저승차지 시합에는 일부 서사적 줄거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천지왕본풀이>라는 신화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2) 불도맞이제

인간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불도신, 즉 생불신과 아기의 질병을 일으키는 저승할망, 그리고 마마를 앓게 하는 대별상신을 맞아 행하는 제의인 [불도맞이제]에서는 <생불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운다. 이 두 본풀이 중 전자는 생불신이 되기 위해 산육신인 생불할망과 질병신인 저승할망이 서로 경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후자는 생불신과 마마신과의 경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9.

3) 초공맞이제

무조신(巫祖神)인 초공신을 맞아 행하는 제의인 [초공맞이제]에서는 <초공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운다. 초공본풀이는 쌍둥이 세 아들이 어떻게 하여 무악기와 제기, 그리고 무의식(巫儀式)을 만들어 최초의 굿을 행했는가를 알려주는 신화다.

4) 이공맞이제

인간의 생명을 조정하는 생명꽃들이 피어 있는 '서천꽃밭'에서 이 꽃들을 관장하는 신인 이공신들을 맞아 행하는 [이공맞이제]에서는 <이공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운다.

5) 삼공맞이제

인간 한 평생의 행·불행 및 운명을 관장하는 신인 전상신에 대한 제의인 [삼공맞이제]에서는 <삼공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운다. 이 신화는 가난한 거지가 셋째딸을 낳은 후 부자가 되었는데, 이 딸을 내쫓은 후 눈이 멀고 다시 거지가 되었다가 후에 딸이 베푸는 걸인잔치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6) 시왕맞이제

저승에 있는 열 다섯 시왕(尸王)과 죽은 인간을 저승까지 데리고 가는 신인 저승차사 강님을 맞아 행하는 제의인 [시왕맞이제]에서는 <강님차사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운다. 이 신화는 강님이 어떻게 하여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나 이승의 불가사의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나, 그리고 그 결과로 후에 저승차사가 되었나를 설명해 준다.

7) 멩감맞이제

인간의 죽을 액을 미리 막는 법을 마련해 준 장수신(長壽神), 즉 멩감신(命鑑神)을 맞아 행하는 제의인 [멩감맞이제]에서는 <사만이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운다. 백년해골을 위하여 거부가 된 사만이가 그를 잡으러 온 저승차사를 대접하고 오래도록 장수하였다는 것이 신화 내용이다.

8) 세경맞이제

농경기원신인 세경신을 맞아 행하는 [세경맞이제]에서는 <세경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운다. 이 신화는 자청비라는 여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만나 사랑을 맺고, 후에 그를 따라 하늘에 올라 이곳의 변란을 제압해 준 공으로 오곡종자를 얻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9) 칠성맞이제

풍농신인 칠성신을 맞이하여 행하는 [칠성맞이제]에서는 <칠성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운다. 노부부가 하늘의 칠성신에게 빌은 결과 딸아이를 얻었는데, 이 딸이 임신을 하자 함에 넣어 바다에 띄워버린다. 후에 사람들이 이 딸과 여기에서 태어난 일곱 신들을 발견하고 이를 위하니 부자가 되자 사람들이 전부 이 신을 모시기 시작한다. 칠성신이란 바로 뱀을 말한다.

10) 문전맞이제

집안의 곳곳을 지켜주는 성주신, 즉 문전신들에 대한 제의인 [문전맞이제]에서는 <문전본풀이>라는 신화가 불리운다. 이것은 계모가 속임수를

써서 전처가 낳은 일곱 아들을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이 아들들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1번째는 본향맞이제이고, 12번째는 일월조상맞이제인데, 본향맞이제는 마을 수호신에 대한 제의이며, 일월조상제는 한 집단의 수호 조상신에 대한 제의다. 그런데 이 두 곳거리는 큰굿을 행하는 집단이 누구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신화 내용을 바꾸어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만약 A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B라는 특정 집단이 이러한 큰굿을 행한다면 그들은 (11) 거리에 A라는 지역과 관련된 본향신본풀이를 넣으면 되고, (12)거리에는 B집단과 관련된 조상신에 관한 신화를 넣으면 되는 것이다. 제주도 큰굿은 열두거리 큰굿 중 마지막 두 거리에 이러한 절차를 넣음으로서 비록 어떤 집단이 큰굿을 행하더라도 자유롭게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큰굿의 구조가 매우 가변적이고, 탄력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큰굿 구조가 가진 바의 이러한 가변성과 융통성, 그리고 탄력성은 큰굿이 매우 특징적이고 독자적이며, 독창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11번째와 12번째 거리의 신화는 큰굿을 행하는 집단이 누구였던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던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열두거리 제의의 구조는

- [1] 우주창조에 대한 관심에 이어[(1)]
- [2] 생사(生死) 및 장수(長壽), 즉 인간 삶의 존재론적 차원에 관한 관심[(2)-(7)]
- [3] 농경과 풍농, 즉 먹을 것(食)에 대한 관심[(8)-(9)]
- [4] 집과 마을, 즉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10)-(11)]
- [5] 조상신, 즉 집단 및 혈통에 대한 관심[(12)]

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원래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은 열두거리 큰 곳이란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것은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된 바, 신들에 대한 종합적인 제의형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이 세상에는 우주창조에 관여한 많은 신들 및 우리들 인간의 삶을 관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이들 신에게 우리들 인간 삶의 행복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창조되고 창안되었으며, 거행되었던 문화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3. 큰곳내의 신화에 나타나는 가족구성상의 특징

신화(神話)는 신(神)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신들도 인간처럼 인격화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신화 속의 신들 역시 우리들 인간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난을 겪으며 사랑을 하고 살다가 신으로 좌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화 속의 주인공인 신들이 인간과 다른 점은 인간은 결국 죽고 말지만, 신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 속의 신들도 우리들 인간처럼 부모의 결연에 의해 태어나고 형제자매가 있다. 즉, 신들 역시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이 제주도 큰곳내의 신화를 중심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문학적·문화사적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하는데 있는 만큼, 다음에는 앞서의 신화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나타난 가족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자녀에 대한 인식체계에 나타난 특징

부부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다보면 다양한 자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외

아들, 외동딸, 아니면 아들딸을 섞어서 낳거나 혹은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만을 여러 명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들에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검토해 보면 신화형성집단이 가졌었던 바, 자녀에 대한 인식체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쌍둥이 중시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를 살펴보면 자녀 중에는 우선 쌍둥이가 중시되고 있다. 베포도업침 중의 천지왕본풀이나 초공본풀이에는 주인공이 되는 신들이 모두 남자 쌍둥이들이다. 그런데 전자에서는 두 쌍둥이, 후자에서는 세 쌍둥이로 나타난다.

천지왕본풀이에서의 쌍둥이 두 형제, 즉 대별왕과 소별왕은 이 세상에 각각 두 개씩 있었던 해와 달을 각기 현재와 같이 하나씩 있게 만들고 하나는 이승을, 그리고 다른 한 존재는 저승을 맡는 신이 된다.

이 세상에서 무악기(巫樂器) 및 무구(巫具)를 처음 만들고 무의식을 최초로 집행했던 무조신(巫祖神)들은 세 쌍둥이로 나온다. 이들은 황금산도단땅에 살고 있는 주자선생을 아버지로 하고, 지상에 살고 있는 ‘이산줄이번고저산줄이번어왕대월석금하늘노가단풍자지맹왕아기씨’를 어머니로 하여 모친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통해 솟아나오고 있다. 이들이 무법을 처음 창안하게 된 동인은 죽은(혹은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려내고자 하는데 있었는데, 죽은 어머니를 살려 내기 위해 세 쌍둥이 중 첫째인 본맹두는 초감제를, 사이인 둘째는 초신맛이를, 그리고 셋째인 삼맹두는 시왕맛이를 맡는 신이 된다.

이처럼 베포도업침과 초공본풀이에서는 쌍둥이들이 중시되고 있는데,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우주적 원리에서, 해와 달(즉 낮과 밤), 이승과 저승(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던 쌍분법에 의해서 두 쌍둥이가 설정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초공본풀이에는 이 세계가 천지인(天地人) 세계로 삼분되어 있음을 중시하고, 무(巫)들로 하여금 이러한 세 공간의 질서를 각기 주관하게 하고자 세 쌍둥이로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에는 쌍둥이에 대한 기묘한 신앙이 있어서 이들은 자연에 대해서, 특히 천후(天候) 대해서 주술적(呪術的)인 힘이 있다고 믿었다 한다.²⁾ 그런데 천지왕본풀이 및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쌍둥이에 대한 신성 관념은 제주도 큰굿 및 신화를 창조한 집단 역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무남독녀 외동딸 중시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이 등에서 여주인공은 무남독녀 외동딸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부모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기차치성을 드린 후 얻는 존재들이다.

2) J.G. Frazer, 김상일 역, 『황금의 가지』, 을유문화사, 1975.

107쪽. 쌍둥이가 자연에 대해서, 특히 천후에 대해서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신앙은 널리 분포되어 있던 신앙이다. 북미 인디안의 많은 부족 및 동남아프리카의 델라고만 근처에 살고 있는 바롱가족도 쌍둥이가 특별히 천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이들을 신성시 했다고 하는데,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바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늘의 질서를 잡은 최초의 신이 두 쌍둥이였고, 최초의 무사제자였던 초공의 삼형제도 세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도 옛날에는 쌍둥이에 대한 기묘한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쌍둥이는 보통의 인간과는 출생시부터 다르다. 일시에 둘, 또는 셋이 동시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숫자 면에서도 중시될 수 있으나, 아마도 그들이 가진 비슷한 외양 때문에 더욱 신성시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배에서 동시에 둘 또는 세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도 보통인간과 다른 특이한 사실일 수 있는데, 또 한편 이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신기한 일일 수 있다. 이들이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고대(古代)사회에 있어서, 이들은 아마도 어떤 신적 배려나 주술적인 힘에 의해 태어났다고 생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에 이들이 신성한 어떤 주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 및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쌍둥이에 대한 신성관념은, 본 신화를 형성한 집단도 쌍둥이에 대한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본 신화들이 세계 보편적인 신앙체계 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으로서, 이들 신화 내용이 상당히 고형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초공본풀이의 여주인공 ‘이산줄이번고저산줄이번어왕대월석금하늘노가 단풍자지맹왕아기씨’는 후일 신당에서 무구(巫具)와 제기를 지키는 당신이 된다. 세경본풀이의 여주인공 자청비는 하늘로부터 오곡종자와 메밀씨를 가져와 우리민족에게 전해주는 농경기원신이 된다. 후일 일곱 명의 자식을 낳는 칠성본풀이의 여주인공은 고팡(광)에 살면서 풍농을 가져다 주는 신이 되는데, 이 신이 낳은 일곱 명의 자녀들 역시 모두 집안의 곳곳에 살면서 부(富)를 가져다주는 신들로 좌정한다.

무법(巫法)을 행함에 있어 필수적 요건은 바로 무구 및 제기(祭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곡종자를 전해주는 농경기원신이나 풍농을 가져다 주는 풍농신은 먹을 것, 즉 식(食)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 큰굿을 창조한 집단은 바로 이런 신들을 모두 무남독녀 외동딸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무남독녀 외동딸, 그것도 늙도록 자식이 없다가 뒤늦게 얻은 귀한 딸이 무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무기구 및 제기를 지키는 당신이 되거나 농경신 및 풍농신이 된다고 하는 것에는 신화 형성집단이 이러한 외동딸이 가지는 바, 고귀성, 신성성, 독립성, 독자성, 그리고 생래적인 강인함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현재 보통 한 집안의 무남독녀 외동딸 하면 매우 연약하고 나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신화 형성 집단은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3) 말자 중시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에는 막내, 곧 다시 말하면 말자(末子)를 중시하는 특징도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쌍둥이 두 형제 중 대별왕은 저승을, 그리고 동생인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생인 소별왕으로 하여금 이승을 차지하도록 했다는 것은 형보다 동생, 즉 막내를 중시했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수수께끼나 꽃피우기 시험에서 형인 대별왕이 이기는 것은 지혜나 생래적인 능력 면에 있어 형이 동생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결국은 동생이 이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두 신이 벌이는 시험의 목적이 이승을 차지하는데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신화형성 집단이 저승보다는 이승을 중시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동생으로 하여금 이곳을 차지하도록 설정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형보다는 동생인 막내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초공본풀이 내용을 중시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쌍둥이 삼 형제 중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막내인 삼뎡두라 할 수 있다. 위의 두 형은 어머니의 겨드랑이를 통해 태어나지만, 막내는 어머니의 가슴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내 중시 의식은 세 신이 맡는 무의식(巫儀式)의 내용에도 반영되어 있다. 첫째인 본뎡두는 초감제를, 사이인 둘째는 초신맛이를, 셋째인 삼뎡두는 시왕맛이를 맡는 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초감제란 큰곳 시작의 맨 처음에 행하는 의식으로 이 세계 및 인간세상의 문화를 창조해낸 수많은 신들을 의식이 행해지는 제청으로 모시는 의례라 할 수 있고, 초신맛이는 아직 그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추측컨대는 초감제에 이어 신들을 다시 제청으로 불러 모시는 의식이 아닌가 하며, 시왕맛이는 사후 세계인 저승에 있는 신들, 즉 열 다섯 시왕과 저승차사를 맞이 하여 행하는 제의라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세 아들이 무가 되는 동기는 바로 죽은(혹은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려내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중시하면 무속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매우 중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왕맛이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의를 바로 셋째인 삼뎡두가 맡고 있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에서는 사라도령과 원강아미, 그리고 할락궁이가 모두 외아

들이거나 외동딸로 등장한다. 그러나 장자와 관련해서는 셋째 딸이 등장한다. 서천꽃밭의 꽃감관을 하고자 사라도령이 임신한 원강아미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원강아미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장자집에 들러 머물고자 하는데, 이 때 장자는 세 딸을 불러 지나가는 과객이 어떤 가를 물어본다. 위의 두 딸은 과객이 집안을 나쁘게 할 존재들이라 하지만, 셋째 딸만은 이들을 좋게 말하여 원강아미가 장자집에 남게 하는데 일조(一助)를 하고 있다.

삼공본풀이에서 전상신이 되는 가문장 아기는 셋째 딸이다. 거지였던 부모는 이 딸을 낳은 후부터 부자가 되고, 이 딸을 내쫓은 후 안맹하게 되며 다시 가난해진다. 쫓겨난 셋째 딸은 마통이 집에 들어가 셋째 아들인 마통이와 결혼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 신화는 셋째 딸과 셋째 아들이 중시되고 있는 전형적인 신화라 할 수 있다.

문전본풀이에는 딸은 없이 일곱 아들만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막내아들이 중시되고 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본처를 죽인 후 거짓으로 본처인양 꾸미고 남편과 함께 일곱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오직 막내인 일곱째 아들만이 그녀가 계모인 줄 알고 그를 징치한다. 신으로 좌정하는 공간에 있어서도 위의 여섯 형들이 동서남북 중앙의 다섯 곳과 뒷문을 지키는 신이 되는데 반해 막내가 일문전을 지키는 신이 된다. 일문전이 바로 집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앞문이라고 하면 그는 일곱 아들 중 가장 중요한 곳을 차지하는 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도내 큰곳의 신화에서는 형제나 자매가 등장한다면 특히 3자매, 3형제 또는 7형제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여러 자매나 형제 중에서는 특히 막내라 할 수 있는 딸자가 중시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내 중시 사상이 '내리사랑'이라는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적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화 형성 당시의 어떤 정치·사회적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

해야 할 것이다.

2) 세대 및 가계를 중심으로 본 특징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 간, 즉 세대간을 중시할 때 나타나는 가족구성상의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천부지모(天父地母) 및 신성혼 인식

베포도업침에 나타나는 바, 해와 달이 생기는 과정에 있어 하늘에 해와 달이 각각 두 개씩 생겨 사람들이 낮에는 타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자 하늘의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와 부인을 얻어 아들을 낳고, 이들이 커서 하늘에 올라 해와 달을 각기 오늘날 처럼 하나씩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에는 하늘은 아버지이며, 땅은 어머니로 보았던 천부지모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신화 형성집단은 땅위에 발붙이고 살면서 머리 위에 있는 저 높은 하늘은 아버지로, 그리고 땅은 어머니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들이 해와 달의 숫자를 조정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는 신성혼(神聖婚)³⁾ 인식과 함께 해와 달은 하늘과 땅의 총체물이며 중간적 속성을 가진 존재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인식했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땅이 하늘과 결합하여 아들을 낳고 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는 땅인 대지를 우주적인 산출력(產出力)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식했음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이 신

3) 천신(天神)인 아버지와 어머니인 대지 사이의 신성혼에 따른 결과로, 우주적 창조 혹은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우주 창조신화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한다. 이것은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미크로네시아에 걸친 오세아니아 지방에서 주로 발견되고,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는데(M. Eliade,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1983, 112쪽)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 포함)은 우리민족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신화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화형성집단이 땅인 대지를 위대한 어머니인 대지모신(大地母神, Terra mater)으로 관념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대지에 몸담아 살고 있는 인간들은 대지의 원초적인 이미지를 어머니로 표상했던 것이 보편적이라 하는데,⁴⁾ 이 신화에는 우리민족도 역시 이렇게 보았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2) 기자치성을 통한 여신들의 출생

초공본풀이·세경본풀이·칠성본풀이에는 신화의 서두가 부유한 집안의 부부가 늙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기자치성을 드리고 자식을 얻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 때 태어나는 아이가 전부 딸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외동딸 중시’ 부분에서 자세하게 고찰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⁵⁾ 다만 초공본풀이 및 세경본풀이가 절에다 원불수룩을 드리고 딸을 얻는 반면 칠성본풀이는 칠성단을 쌓고 여기에 공을 드린 후 딸을 낳고 있는데, 이것은 칠성신이 뱀이기 때문에 인격적(人格的)인 다른 신들의 출생담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기자정성을 드린 후 자식을 얻고 있다는 것은 얻기 힘든 자식을 얻었다는 점에서, 태어난 존재의 신성성을 더하고 신비감을 더해 주기

4) M. Eliade, 이동하 역, 『성과속』, 학민사, 1983, 107쪽.

5) 이상에서 살핀 것은 열 개의 본풀이 중에 나오는 것이고, 이외에 희생제물을 드리며 구송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지장본풀이>라는 신화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지장의 부모인 남산국과 여산국은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불당에 시주하고 원불수룩을 드린 후 딸을 낳는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무속신화에는 중요한 11개의 신화 중 5편에나 아이를 낳기 위해 기자정성을 드리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중시하면, 기자정성 또는 기자치성적 요소는 제주도 무속신화 중 신들의 출생과 결부된 중요한 신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출생한 존재는 거의 대부분 딸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위해서 설정된 요소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신들의 존재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한 신화내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아이의 수태와 산육으로 고통받는 여성들

큰곳내의 신화에 나오는 여성신 중 생불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생래적인 능력으로 신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타고난 여성영웅의 원형상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칠성본풀이 등에 나오는 여신들은 대부분 타자에 의한 아이의 잉태와 그로 인한 집으로부터의 내쫓김, 그리고 출산 및 양육이라는 일정한 시련과 고난, 그리고 간혹은 죽음을 치른 후에야 신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몇몇 여성신이 겪는 이와 같은 시련 및 고난은 바로 모신(母神)에게 부과되는 바 중요한 여성 수난상이라 할 수 있다.

나중에 무기구 및 계기를 지키는 신이 되는 자지맹왕아기씨는 황금산 도단땅에 살고 있는 주자선생의 세 아이를 잉태했기에 부모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원강아미도 아이를 잉태했기에 남편과 헤어져 장자집에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게 된다. 칠성본풀이의 여주인공 역시 일곱 아이를 잉태한 것 때문에 상자에 넣어져 집밖으로 축출되고 있다. 칠성본풀이는 약간 예외이지만,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에 나오는 두 여신은 남편 없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기르며, 아들들이 성장한 이후에는 또 이들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다가 결국은 이 아들들에 의해 재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들 신화에는 모자(母子) 원리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화에 나타나는 바,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이러한 시련 및 고통은 이들 여신이 이러한 고통을 겪은 후에야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라는 상징의미를 갖고 있다.

(4) 아버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의 아버지 찾기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는 아버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 떠나고,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표(本標)나 이름 등을 통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아버지를 만나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을 가리켜 부친찾기 모티프(motif), 또는 심부담(尋父譚)이라 한다면, 이 요소는 큰굿이라는 무의식의 앞부분에서 구송되는 세 신화에 모두 나오는 만큼, 그리고 신의 위계상 최상위에 속하는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큰굿내의 신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족 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별왕 소별왕이 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서당에서 공부하다 아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찾고자 하며, 부친이 남겨 놓고 간 박씨를 심어 그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부친을 만난다. 초공본풀이에서도 세 아들이 이웃으로부터 애비 없는 호로새끼라는 구박을 받고 아버지를 찾고자 하지만, 결국은 죽은(혹은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고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공본풀이에는 아들 신산만산할락궁이가 열 다섯이 되자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있는 곳을 묻고 장자집을 떠나 서천꽃밭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버지 없는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 이후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내용은 앞서와 같이 중요한 세 신화에 등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남성신과 관련되어 있다. 아버지 없는 가운데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수태만을 시키고 곁을 떠나갔다는 점에서 앞에서 고찰한 여성의 수난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아버지를 만난 후의 부자확인 방법은 대체로 신표(信標)나 능력시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부친 찾기 및 신표나 능력시합을 통한 부자확인이 가지는 신화적 의미는 친자인지(親子認知)를 통한 가계(家系) 계승 및 신통(神統) 계승,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들신들이 신으로

좌정하기 위해 꺾어야 하는 통과의례적 의미가 있다.⁶⁾

(5) 처첩 갈등 및 전실 자식과 계모와의 갈등

큰곳 내에 나오는 신화 중 유일하게 문전본풀이에는 처첩 갈등 및 전실 자식과 계모와의 갈등이 나타난다. 문전본풀이는 집안의 여러 곳을 지켜주는 신들에 관한 신화라서 가정사 일이 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우리 신화에 나타나는 인물 중 가장 전형적인 악인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재산을 탐내 다른 여자의 남편을 유혹하고, 그 남자의 본부인을 물속에 집어넣어 죽일 뿐만 아니라 전처 소생의 일곱 아들을 죽이려고 피병을 앓아 아이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자식까지 죽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부인은 조왕신이 되고, 첩은 측간신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여산부인이 벌이는 처첩갈등은 곧 부엌과 측간이 가지는 상반된 공간의 기능, 즉 부엌과 측간은 멀수록 좋다는 원리에서 형상화된 신화내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살고자 일곱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어머니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계모는 이렇게 하고 있다. 혈연이 통하지 않는 관계에서 이들은 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처 소생 일곱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신화에서는 ‘계모란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없고 단지 의사(擬似) 어머니’일 뿐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6) 이 주제에 관한 것은 김은지, 「부친탐색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에도 자세하게 고찰되어 있다.

(6) 2대 및 3대의 기술

우리 건국신화에는 3대(三代)가 기술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⁷⁾ 그런데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에는 2대(二代)만 나타나는 신화가 있는가 하면 3대가 서술되는 신화도 있다.

천지왕본풀이, 생불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멩감본풀이, 세경본풀이 등에는 2대만 나타나 있다. 반면에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칠성본풀이 등에는 3대가 나타나 있다. 마지막의 문전본풀이는 신화의 초반부, 즉 늑디생인의 어머니가 출생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대가 나타나는 두 본풀이에 있어 3대의 서술은 대체로 모신(母神)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쌍둥이 삼형제의 어머니가 되는 자지멩왕아기씨와 관련하여 3대가 서술된다. 칠성본풀이 역시 일곱 자식의 어머니와 관련하여 3대가 서술된다.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에는 대체로 2대를 서술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3대를 기술하는 것은 주로 주인공이 되는 신의 모계 쪽과 관련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제주도 큰굿내 신화에 나타나는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큰굿 내의 신화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상의 특징이 가지는 의의

제주도 큰굿내의 신화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녀로서는 특히 쌍둥이, 무남독녀 외동딸, 말자(막내)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고, 세대 전체를 중시할 때는 천부지모, 기자치성, 잉태 및 산육으로 인

7) 장덕순 외 3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36쪽 참조.

한 여성수난, 부친찾기, 처첩갈등, 계모와 전실 아들간의 갈등, 모계를 중심으로 하는 3대적 기술 등이 큰 특징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외에도 멧감본풀이에 나타나는 것처럼 백년해골을 중시하는 경향이나 칠성본풀이에 나오는 것처럼 뱀과 인간이 결합을 하는 이물(異物)교혼도 제주도 큰곳내의 신화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큰곳은 뱀을 풍농신으로 관념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인간의 생명체계를 식물체계에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인간의 성행위로부터 유추하여 불(火)을 만들어내고, 그런 결과 사람(人)과 불(火, fire)을 서로 상동성(相同性, homology)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 둘을 다 함께 <불>이라 말하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어⁸⁾ 이것은 그 형성시기가 매우 오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 큰곳은 그 거리의 성격이 육지쪽 무속과 상호밀접한 관련이 있고, 육지쪽에는 여기에 나오는 신화들이 무속신화로도 존재하지만⁹⁾ 간혹은 전설·민담·소설 등으로 변해있는 것을 보면¹⁰⁾ 이것은 제주도에서 자연발생한 것이라 하기보다는 고대의 언제인가 육지쪽 어디에선가 형성되어 제주도로

8) 이 중 사람과 불(火)을 다 함께 <불>이라 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수자, 「한국문화에 나타난 <불>의 다층적 의미」, 『역사민속학 10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및 이수자, 「불과 성, 그 은밀한 역사」, 『성과 문화 돌아보기』,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2001.

9)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중 “제석본풀이 연구”를 참조하면 제석본풀이와 같은 서사구조를 가진 신화가 전국의 무속에 거의 다 전승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와 서사구조가 같은 것이다. 다만 마지막에서 세쌍둥이가 맡는 신직(神職)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오랜 전승기간을 통해 나타난 변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와 같은 연구 내용을 중시하면,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와 같은 신화는 전국의 무속 현장에서 거의 다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0) 이공본풀이는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지립사 연기설화, 석보상절 중의 안락국태자경, 고소설 안락국전 등으로 존재하고 있고, 삼공본풀이는 “내복에 사는 여자”, 또는 “숫구이 총각” 등의 이야기로 널리 광포하고 있다. 이공본풀이에 관한 것은 이수자, 「무속신화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10집, 제주도연구회, 1993 및 이수자, 「지립사 연기설화의 설화적 성격과 의의」,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사재동교수회갑기념논총 1995 참조. 삼공본풀이에 관한 것은 김대숙(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및 현승환(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연구가 있다.

이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큰곳이 매우 고행의 문화물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이것을 우리 민족문화사에 있어 매우 시원적(始原的)인 위상을 지니고 있는 문화적 총체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본고에서 검토한 바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우리 신화의 시원에서 나타나는 가족 구성상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바의 특징들은 앞으로 우리 문학 및 문화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러한 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형제 자매 중 특히 막내, 즉 말자가 중시되는 특징만을 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의미는 우선 문학적 차원과 문화사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문학적 의미

큰곳 내 신화에 나타나는 말자 중시 현상은 문학적 측면에 있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이것은 큰곳 내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또는 고대에 있어 우리민족이 창안해냈지만 지금은 신화로 전승되지 않는, 이른바 잃어버린 신화들을 추적해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큰곳의 구조를 보면 마지막 11번째, 12번째 곳거리는 본향맞이제와 일월조상맞이제였다. 본향신은 고향, 즉 마을을 지키는 신을 말하는 것이므로 곧 당신이 된다. 일월맞이제에서 일월은 곳을 행하는 집단의 수호신, 또는 조상신을 뜻한다. 큰곳 구조에 있어 마지막에 이 두 곳거리가 있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신화를 부르며 설정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서로 다른 집단이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곳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 있어 큰곳이 행해졌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집단에 따라 수많은 신화가 형성되어 살아 숨쉬며 구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로 실제 우리 민족은 큰곳을 행하면서 수많은 신화를 창조해내었

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신화들은 소멸되어 자취를 감추었거나 혹은 전설·민담·고소설 등의 이야기로 변하여 우리 문화 속에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곧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바의 마을수호신에 관한 신화 및 당신화, 그리고 국조신화나 성씨시조신화 들도 어찌면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많은 이야기, 또는 신화들 속에서 그 내용이 큰곳 내 상황과 관련이 있고 내용상 말자 중시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들은 일단 원래 큰곳내에 있었던 신화였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들과 관련이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로는 우리 나라에서 광포하는 민담 중 큰곳 내 상황과 관련이 있으면서 말자 중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들도 일단은 원래 큰곳내의 신화가 아니었던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앞으로 별고를 통해 큰곳의 형성시기를 검토해 볼 예정이지만, 큰곳은 워낙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이며 구비전승되어 온 것이기에 현존하는 곳 자료를 보면 원래 내용 그 대로를 담고 있지 못하고 내용상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기에 원래 신화로 있던 것들도 따로 떨어져 나와 이미 민담으로 변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큰곳과 관련이 있었던 내용이나 혹은 신화들을 추정해 내는데 말자 중시 현상은 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우리나라에 광포하고 있는 구렁덩덩신선비라는 민담은 어찌면 고대에 있어 큰곳 내의 신화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주인공이 구렁이, 즉 뱀이라는 점에 있어 큰곳 내의 칠성신, 혹은 칠성본풀이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신선비의 부인이 되는 여자는 이웃집 장자의 셋째 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큰곳내의 신화에 나타나는 바 셋째 딸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큰곳 내 신화에 나타나는 바의 말자(末子) 중시 양상은 이처럼 고대에 있어 형성된 우리 민족의 신화들을 추적해내는데 있어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 자료들을 본다면 앞으로 고대의 많은 신화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문화사적 의의

큰굿 내에 나오는 열 편의 신화 중 적어도 네 편 이상에 나타나는 말자 중시 현상은 또한 문화사적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의 전통사회 및 근세사, 그리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한 집안에 있어 말자보다는 장자(長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기에 가계 계승권 및 재산 승계가 모두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흥부전은 바로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큰굿 내 신화에 나타나는 바 말자 중시 현상은 이러한 사회현상과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줌으로서, 우리민족사에 있어 고대의 언제인가는 장자보다는 말자를 중시했던 사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막내, 즉 말자가 부친을 이어 가계를 계승하고 위대한 신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신화적 허구일 뿐 말자 중시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공본풀이 같은 내용에도 똑같이 말자가 중시되고 있는 것은 큰굿 형성 당시의 세계관, 또는 사회상이 바로 이러한 사회였음을 반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신화에 나타나는 바의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큰굿 형성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학 작품은 그것이 소산된 당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시하면, 큰굿 내 여러 편의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말자 중시 양상은 곧 큰굿 형성 당시의 사회상이 말자 중시 사회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민족 고대사에 있어 우리는 언제인가 장자보다는 말자가 중시되었던 바의

말자 중심 사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¹¹⁾ 그리고 이처럼 큰곳이 형성될 당시의 가족사, 또는 생활상이 말자 중심의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문화에 남아 있는 고대적 자료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단군신화에 있어서 환웅은 환인의 서자(庶子)였다고 한다. 그간 우리는 이 때 서자의 의미를 못 아들로 해석하면서, 환웅이 장자(長子)로 나타나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해 왔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환웅을 첩의 아들로 해석하기까지 하는 비극적 결론을 얻기도 했던 것이다.

단군신화에 있어 환웅이 장자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전(全)역사에 있어 우리민족이 다만 장자 중시의 사회만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신화적 내용을 중시하면, 고대의 언제인가 우리민족은 말자 중시의 사회를 살아온 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군신화에 나타나는 바 서자(庶子) 운운하는 것은 어찌면 바로 이런 사회적 현상에서 배태된 것일 수도 있으며, 신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단군신화의 형성이나 발생은 바로 큰곳내 신화들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제주도 큰곳이 가지는 문화사적 위상을 중시하여, 제주도 큰곳

11)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및 야곱의 이야기도 실은 말자 중시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삭의 둘째이자 막내아들인 야곱은 팔족 한 그릇을 주고 형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넘겨 받아 아들 12명을 낳았는데, 이들은 이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이삭이 5살 때가 기원전 1913년이라 하니, 이렇게 보면 아랍권에서는 기원전 약 20세기가 바로 말자 중시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내의 신화에 나타나는 바 가족구성상의 특징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시도된 것이다. 본고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큰곳내의 신화로는 배포도엮침, 생불할망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강림차사본풀이, 멩감본풀이, 세경본풀이, 칠성본풀이, 문전본풀이 등이 있는데, 이들 신화에 나타나는 가족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녀로는 쌍둥이, 무남독녀 외동딸, 말자(막내)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고, 세대를 통틀어 살펴보면 천부지모, 기자치성, 잉태 및 산육으로 인한 여성수난, 아버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의 아버지 찾기, 처첩갈등 및 계모와 전실 아들간의 갈등, 모계를 중심으로 하는 3대적 기술, 이물교환, 백년해골 중시 등이 큰 특징으로 드러난다.

제주도 큰곳은 뱀을 풍농신으로 관념하는 등, 신화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매우 고형의 문화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바 신화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우리 문화 및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민족은 고대에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바 지금은 이런 것을 복원할 길이 없는데, 큰곳 내의 신화에 나타나는 바 말자(末子) 중시 양상 같은 것은 고대에 형성된 우리 민족의 신화들을 추적해내는데 있어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구렁덩덩신선비 이야기는 뱀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장자집 셋째 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큰곳내의 신화가 가지는 특징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것은 어쩌면 고대에 있어 우리민족의 신화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단군 신화에 나오는 바 환웅이 환인의 서자(庶子)로 나오는 것은 어쩌면 고대에 있어 장자보다는 딸자를 중시했던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제주도 큰곳 내에 나타나는 바 가족 구성상의 특징들은 앞으로 우리 신화 및 문화를 복원하고 해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그 연구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haracteristic and Meanings in Family Structure in the
Mythology of 'KUNKUT' of Cheju Island

Lee, Soo-Ja

Kunkut of Cheju Island and its myths are fairly old cultural assets. This study has been done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in family structure in myths.

There are myths in Kunkut of Cheju Island such as : Bepodupchim, Sengbulhalmang-bonpuli, Chokong-bonpuli, Ikong-bonpuli, Sankong-bonpuli, kanglim-bonpuli, Mengkam-bonpuli, Sekyoung-bonpuli, Chilsung-bonpuli, Munjun-bonpuli, etc. As for the characteristics in the family structure, the attention to the children is centered to twins, only daughter and youngest one.

Throughout generations, heaven-father and earth-mother, old man and wife praying for having a son, women sufferings due to giving birth and upbringing, looking for fathers by sons born without them, troubles between wife and lover or between step mother and former wife's son, marriage between human being and animal, respect to old skull.

The myths were abundant in the ancient times but there is no way to be brought those myths back to life. As an example, the centered attention to the youngest child plays a key role in pursuit of those myths of ancient times. The story of Gurungdungdungsinsunbi, which is about snake and, at the same time, Jang Ja family's youngest daughter has

most important role,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myths in Kunkut of Cheju Island. Therefore, this story could have been one of those lost myths of ancient tim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act that Hwanwoong was the illegitimate son of Hwan-In in Dankun myth could be related to the social tendency of the ancient times in which more importance was given to the youngest child than to the first one.